

여성선비의 덕성과 맥락

박희택*

■ 차례 ■

- I. 여성선비의 편찬과 女士의 성립
- II. 女士의 준거개념에 관한 검토
- III. 女士와 女中君자의 덕성
- IV. 女士와 女中君자의 맥락

【국문초록】

선비를 남성에 국한시키지 않고 여성으로 확대하여 볼 때, 여성선비 곧 女士의 성립을 상징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선비의 성립은 女學士들에 의한 여성선비서의 편찬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女士의 준거개념으로 선비[士]·君子·大人·大丈夫 등이 있는데, 『논어』와 『맹자』를 중심으로 엄밀독해하여 보면 이들은 용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이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여성을 주체화하는 여성선비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 女士와 女中君子와 女中學者가 두루 사용되어 왔다. 여중군자로 불린 張桂香(1598~1680)에게서는 세 가지 용례를 다 발견할 수 있다.

여성선비는 현모양처의 측면이 분명히 있으면서, 학식이 풍부하고, 시문에 능하며, 단정하고 의연한 덕성을 품고 있었다. 조선 중기의 장계향의 경우 四德으로

* 전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표현되고 있는데, 仁愛懇惻과 樂善好義와 終始如一과 導人爲善이다. 장계향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겼고, 착한 일을 즐거워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이렇게 하기를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처음과 끝이 여일하게 하였고, 자신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을 인도하여 함께 착한 일을 하도록 하였다. 조선에서 여성 선비의 맥락은 '신사임당 - 장계향 - 임윤지당 - 김만덕'으로 계보학을 형성한다. 신사임당은 현모양처로서, 장계향은 여중군자로서, 임윤지당은 여성성리학자로서, 김만덕은 醫女班首로서 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2008년 이래 경북 여성리더들이 전개하고 있는 女中君子運動이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

주제어

여성선비, 女士, 女中君子, 女中學者, 신사임당, 장계향, 임윤지당, 김만덕, 여중군자운동(경북)

I. 여성선비서의 편찬과 女士의 성립

선비는 대부와 함께 士大夫로 범주화되면서 유학의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를 배출하는 두 계층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선비라는 존재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동한 중국 춘추시대 이래 선비는 사대부의 일원으로서, 또 국가공동체에서 하위관료로서 전문성과 大義性을 견지하여 지식인의 역할을 해왔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시대상이 더욱 혼탁해진 만큼 그 역할의 증대를 보다 크게 요구받았으며, 조선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이르러서는 춘추전국시대에 요구받았던 선비의 실천적 모습이 온전히 구현된 측면이 크다. 그러기에 한국사회에서는 대체로 선비를 올곧은 지식인의 표상으로 오늘날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춘추시대 선비의 개념과 임무는 『논어』에서, 전국시대 선비의 변화와 발전은 『맹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두 텍스트에서 집성된 선비는 실로 남성을 주체로 한 것이 사실이며, 선비와 여성의 마주침[合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에서 여성선비 곧 女士의 개념이 보이는 것은 曹大家로 불린¹⁾ 후한 班昭의 『女誡』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전한의 劉向이 편찬한 『列女傳』²⁾이 전시기에 나왔으나, 이것은 못된 재앙을 불러온 여인들의 전기인 孽嬖篇도 들어있어 여성선비를 상정한 텍스트라 하기 어렵다.

『여계』는 7편으로 되어 있는데, 각 편이 여성의 덕을 이룬 것이어서 여성선비로 가는 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卑身(자신을 낮춤), 敬順(공경하고 수순함), 婦行(여성의 덕행), 專心(부군에게 집중함) 등의 덕목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불편한 측면도 있으나, 당대의 눈으로 보면 여성선비의 내재적 정당성을 고취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특히 부행으로 규정한 ‘婦德·婦言·婦容·婦功’의 네 가지는 여성선비의 조건(女有四行)이라 할 만하다.³⁾ 비록 ‘여사’라는 용례는 없으나, 『여계』는 여성선비의 길을 교육하기 위해 정리한 최초의 여성선비서 내지 여성교육서라 할 수 있다.

『여계』에 이어, 당나라 때는 宋若昭에 의해 『女論語』가 편찬되었으며, 명대에는 제3대 成祖 文皇帝의 원비인 仁孝文皇后에 의해 『내훈』이, 청대에는 王節婦 劉氏에 의해 『女範捷錄』이 생산되었다. 왕절부 유씨를 어머니로 하는 王相은 이들 네 여성선비서를 ‘女四書’로 명명하면서 그 집주를

1) ‘曹大家’는 통상 ‘조태고’로 읽는다. 大는 ‘클 태’로 새기고, 家는 ‘여성 고’로 새긴다. ‘태고’로 읽어 큰 여성의 의미를 보다 살린 것이다.

2) ‘烈女傳’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여러 여성의 전기인 ‘列女傳’이다.

3) 이 여유사행은 소혜왕후의 『내훈』(1475)과 이덕무의 『사소절』(1775) 등에도 편입된다.

펴냈다. 흔히 여사서라 함은 왕상의 이 집주본을 일컫는다. 편찬자가 모두 여성인 이들 네 여성선비서가 봉건적 사회제도를 배경으로 하나, 그 당대의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이 선비되는 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임에 분명하다.

여사서를 흔히 여성교육서라 칭하는데, 여성선비서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인효문황후의 “항상 역사서와 전기를 살펴서 옛날의 어진 부인과 정숙한 여성을 찾았는데, 그들은 비록 덕성의 아름다움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고 하나,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常觀史傳求古賢婦貞女, 雖稱德性之懿, 亦未有不由於教而成者)”는 서문 상의 구절⁴⁾을 근거로 들고자 한다. ‘덕성의 아름다움(德性之懿)을 이미 갖춘 여성’을 여성선비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교육으로 이루어졌음(未有不由於教而成)’을 지적인 말이다. 말하자면 여성교육서를 통해 여성선비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성교육서는 곧 여성선비서가 되는 것이다. 조태고를 늘 흠모한 송약소만 하더라도 당나라 덕종이 女學士라 불러 주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여사서는 여성교육과 여성선비를 관념한 일련의 여학사들에 의해 쓰여진 여성교육서이자 여성선비서라 할 수 있다.

여사서는 영조 10년(1734) 연간에 조선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영조실록』과 영조의 여사서 서문에 근거하고 있다. 영조는 재위 10년 12월 20일에 校書館에게 간행지시를 내리면서, 提調 李德壽에게 언문해석[諺釋]을 명하고 있다.⁵⁾ 또한 영조는 재위 12년 8월 27일에 친히 서문을 지어 내리면서, 弘文提學 이덕수로 하여금 언문번역[諺譯]하여 간

4) 왕상, 『여사서 집주』; 이숙인 역주, 『여사서』, 여이연, 2003, 112-114쪽.

5) 『영조실록』, 10년 12월 20일조.

행하라고 명하고 있다.⁶⁾ 이같은 과정을 거쳐 영조 12년(1736)에 언문으로 해석 내지 번역된 『녀사서』가 간행되었다. 여기에 영조의 御製女四書序가 자리잡고 있다. 이 서문에 “내가 몇 해 전에 중국에서 온 한 책을 접하였는데, 그 서명이 여사서였다(予於昔年 偶得唐本一書, 其名曰女四書)”는 구절이 있다.⁷⁾ 이렇게 볼 때 여사서는 영조 10년을 기준으로 가까운 몇 해 동안[年間]에 유입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이점은 영조가 중국의 여사서를 말하면서 조선 소혜왕후의 『내훈』 7편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중국의 여사서의 하나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소혜왕후의 『내훈』이라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소혜왕후는 인수대비로 알려진 성종의 어머니이다. 소혜왕후는 『내훈』(성종 6년, 1475)의 서문에서 『小學』, 『列女』, 『女教』, 『明鑑』 등의 네 책에서 내용을 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⁸⁾ 이 이전에 중국에서 나온 여사서 중의 세 책인 『여계』, 『여논어』, 『내훈』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여범첩록』은 청대에 나왔으니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의 『내훈』은 유교문명권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되, 소혜왕후의 독자적 안목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중국의 여사서와 조선의 『내훈』을 ‘女五書’로 통칭할 수 있겠다.⁹⁾ 이

6) 『영조실록』, 12년 8월 27일조.

7) ‘昔年’을 ‘지난해’로 해석하면 영조 11년(1735)이 되는데, 이것은 영조 10년(1734)에 이미 여사서 간행지시를 내린 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몇 해 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8) 『女教』와 『明鑑』이 어떤 서책인지 명확하지 않다. 『女教』는 『女誠』일 수도 있는데, 그 근거는 ‘여유사행’이다. 『內訓』에도 『女誠』에 나오는 여유사행이 나오기 때문이다. 『明鑑』을 『明心寶鑑』으로 보기도 하나, 그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9) 실제로 이들 다섯 책을 합하여 아세아문화사에서 1974년에 영인간행된 바 있다.

여오서가 유교문명권의 가부장적 질서를 지탱하는 성별지식의 총체인 점은 지적될 수 있지만,¹⁰⁾ 그 당대의 내재적 관점으로 보면 이상적 여성 곧 여성선비를 지향한 측면이 보다 목적시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오서의 구성을 종합하면 <표 I-1>와 같다.

<표 I-1> 女五書의 구성

여오서	『여계』	『여논어』	『내훈』(인효문)	『여범첩록』	『내훈』(소혜)
구 성	01. 卑身	01. 立身	01. 德性	01. 總論	01. 言行
	02. 夫婦	02. 學作	02. 修身	02. 后德	02. 孝親
	03. 敬順	03. 學禮	03. 慎言	03. 母儀	03. 昏禮
	04. 婦行	04. 早起	04. 勤行	04. 孝行	04. 夫婦
	05. 專心	05. 事父母	05. 勤勵	05. 貞烈	05. 母儀
	06. 曲從	06. 事舅姑	06. 節儉	06. 忠義	06. 敦睦
	07. 和叔妹	07. 事夫	07. 警戒	07. 慈愛	07. 廉儉
		08. 訓男女	08. 積善	08. 秉禮	
		09. 營家	09. 遷善	09. 智慧	
		10. 待客	10. 崇聖訓	10. 勤儉	
		11. 和柔	11. 景賢範	11. 才德	
		12. 守節	12. 事父母		
			13. 事君		
			14. 事舅姑		
			15. 奉祭祀		
			16. 母儀		
			17. 睦親		
			18. 慈幼		
			19. 隸下		
			20. 待外戚		

10) cf. 소혜왕후, 『내훈』; 이경하 주해, 『내훈』, 한길사, 2011, 416쪽.

이들 여오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편목의 분량과 제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적으로는 여성의 선비됨의 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덕을 닦고, 學을 배우며, 언행을 바르게 하고, 예를 실천하며, 아내와 어머니와 며느리로서 합당하게 처신하고, 가정을 경영하면서 일가 간에 화목을 꾀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단순히 여필중부하는 것 외에 ‘덕 - 학 - 언행 - 예’ 등의 항목도 누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성선비의 길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여오서를 교육서로 삼아 여성선비의 길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겠다. 요컨대 女士의 성립은 女學士들에 의한 여성선비서의 편찬과 더불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II. 女士의 준거개념에 관한 검토

女士의 성립이 여성선비서의 편찬과 더불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논어』와 『맹자』에서 원형으로 숨쉬고 있는 선비에 그 始原을 두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성선비 또한 선비의 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선비가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어』에 표백되어 있다. 또한 선비가 시대의 변화상과 더불어 어떻게 발전적으로 그 역할을 자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맹자』에 수렴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들 두 텍스트에 여사의 준거개념(criteria concepts)이 있다는 말이다.

『논어』 전498장 속에 선비[士]의 용례는 <표 II-1>과 같이 모두 18

번 나온다. 이 중 술이편 제11장의 執鞭之士(채찍을 잡는 사졸)의 士, 미자편 제2장 및 자장편 제19장의 士師(옥을 관리하는 사법관)의 士와 같이 직업적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¹¹⁾ 미자편 제6장의 辟人之士也 辟世之士哉(사람을 피하는 인사, 세상을 피하는 인사)와 같이 단순히 정서적으로 표현된 士도 있다. 또한 미자편 제11장의 周有八士(주나라의 여덟 선비)와 같이 서주시대에 선비의 삶을 살았던 여덟 인사를 거론한 것도 있다.¹²⁾

이들을 제외한 용례는 선비의 덕성을 언급한 것인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9가지가 된다. ① 선비는 도에 뜻을 둔다. ② 선비는 그 임무가 막중하고, 그 도가 요원하기에 의지가 굳센 弘毅의 삶을 산다.¹³⁾ ③ 선비는 통달을 추구한다.¹⁴⁾ ④ 선비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움으로 단속하며, 외국에 사신을 나가서는 군왕의 명령을 잘 완수한다. ⑤ 선비는 친구 간에는 간절하게 권면하고, 형제 간에는 화목하게 지낸다. ⑥ 선비는 안락함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⑦ 선비는 志士와 仁人으로서 인을 해치면서

11) 士에는 ‘士 = 仕 = 事’의 맥락이 존재한다. 士가 벼슬하지 않은 경우는 『맹자』 만장하편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I에서 선비라는 존재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동한 때는 중국 춘추시대라 한바 있는데, 이 말은 선비의 역사적 보편화를 추구한 시대가 혼란한 동주시대의 전반기인 춘추시대임을 뜻한 것이다. 무너져가는 시대질서 속에서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선비와 군자가 요구되었던 것이며, 이를 특정한 소수의 인사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가치의 보편화로서 선비와 군자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염원이 『논어』에 집대성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13) 막중한 임무는 인의 실천(仁以爲己任)을, 요원한 도는 죽은 뒤에야 끝남(死而後已)을 의미한다(논어 태백7).

14) 통달의 내용은 세 가지이다(논어 안연20). 곧음에 터하고 의를 좋아함(質直而好義), 말에 담긴 뜻을 잘 분석하고 상대방의 안색을 살핌(察言而觀色), 상대를 생각하여 상대 앞에 자신을 낮춤(慮以下人)이 그것이다.

목숨을 구하지 않고, 자기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⑧ 선비는 그 가운데에 仁者를 벗으로 삼는다. ⑨ 선비는 見危致命하고, 見得思義하며, 祭思敬하고, 喪思哀하는 사람이다.

<표 II-1> 『논어』 속의 선비[士]의 용례

-
- 01. 士志於道(이인9) : 도에 뜻을 두는 선비
 - 02. 執鞭之士(술이11) : 채찍을 잡는 사졸
 - 03.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태백7) : '홍의 = 임중도원'의 선비
 - 04. 士何如 斯可謂之達矣?(안연20) : 통달의 선비
 - 05-06. 何如 斯可謂之士矣? 行己有恥, 使於四方不辱君命, 可謂士矣(자로20) :
행기유치, 불욕군명의 선비
 - 07-08. 何如 斯可謂之士矣? 切切僇僇, 怡怡如也, 可謂士矣(자로28) :
절절시시, 이이여야의 선비
 - 09-10. 士而懷居, 不足以爲士矣(헌문3) : 회거하지 않는 선비
 - 11.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위령공8) : 지사로서의 선비
 - 12. 友其士之仁者(위령공9) : 선비 중의 인자
 - 13. 柳下惠爲士師三黜(미자2) : 옥을 관리하는 사법관
 - 14-15. 辟人之士也, 辟世之士哉(미자6) : 사람과 세상을 피하는 인사
 - 16. 周有八士(미자11) : 주나라의 여덟 선비
 - 17. 士見危致命, 見得思義, 祭思敬, 喪思哀, 其可已矣(자장1) :
견위치명, 견득사의, 제사경, 상사애의 선비
 - 18. 孟氏使陽膚爲士師(자장19) : 옥을 관리하는 사법관
-

이렇게 선비의 덕성을 9가지로 정리해볼 때, 이들 덕성은 『논어』에서 107회나 빈발하고 있는 君子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흔히 군자는 有位之人을 넘어선 有德之人으로서¹⁵⁾ 유학의 이상적 인간상이라 정의되는데, 선비의 덕성 또한 이 ‘이상적 인간상’과 거리를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하여 ‘士君子’라는 용어도 등장하는 것이다. 계층적으로는 士大夫이고, 덕성적으로는 사군자인 것이다. 가치적으로는 ‘사’보다는 ‘군자’를 더 이상시한 것이 사실이지만,사와 군자는 내용적으로는 특별한 相距性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여성선비의 성립을 부정할 때 흔히 『논어』 양화편 제25장의 “오직 여자와 소인은 대하기 어렵다.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唯女子與小人 爲難養也. 近之則不孫, 遠之則怨)”는 공자의 언설을 든다. 또 공자가 여성을 인재로 보지 않은(才難) 언사가 태백편 제20장에도 나온다. 무왕의 신하 10명 중 부인(무왕의 처 읍강, 강태공의 딸)도 끼어 있었으니, 실제로는 9명밖에 없었다고 한 것이다. 여성을 소인으로 치부한 것인데, 소인에 대칭되는 군자를 공자는 인재로 보았다. 『논어』의 107회 군자 용례 중 군자와 소인을 대비시켜 표현한 것이 <표 II-2>와 같이 18회나 된다. 이를 살펴봄으로 해서 ‘군자 ↔ 소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선비 ≙ 군자’의 관계파악에 연결할 수 있다고 본다.

<표 II-2> 『논어』 상의 군자와 소인의 대비

-
01.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위정14) : 주이불비 ↔ 비이부주
 02. 君子懷德, 小人懷土(이인11) : 회덕 ↔ 회토
 03. 君子懷刑, 小人懷惠(이인11) : 회형 ↔ 회혜
-

15) 논어 현문편 제5장에는 ‘有德者’란 표현이, 제6장에는 ‘尙德人’이란 표현이 있다.

-
- 04.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이인16) : 유어의 ↔ 유어리
 - 05. 女爲君子儒, 無爲小人儒(옹야11) : 군자유 ↔ 소인유
 - 06. 君子坦蕩蕩, 小人長戚戚(술이36) : 단탕탕 ↔ 장척척
 - 07. 君子成人之美, 不成人之惡, 小人反是(안연16) :
성인지미, 불성인지오 ↔ 성인지오, 불성인지미
 - 08.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之風必偃(안연19) : 덕풍 ↔ 덕초
 - 09.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자로23) : 화이부동 ↔ 동이불화
 - 10. 君子易事而難說也, 說之不以道 不說也, 及其使人也 器之.
小人難事而易說也, 說之雖不以道 說也, 及其使人也 求備焉(자로25) :
이सान열 ↔ 난사이열
 - 11. 君子泰而不驕, 小人驕而不泰(자로26) : 태이불교 ↔ 교이불태
 - 12. 君子而不仁者 有矣夫, 未有小人而仁者也(헌문7) : 군자불인자유 ↔ 소인인자무
 - 13. 君子上達, 小人下達(헌문24) : 상달 ↔ 하달
 - 14.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위령공1) : 고궁 ↔ 궁사남의
 - 15.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위령공20) : 구저기 ↔ 구저인
 - 16. 君子不可小知而可大受也, 小人不可大受而可小知也(위령공33) :
불가소지, 가대수 ↔ 불가대수, 가소지
 - 17. 君子學道則愛人, 小人學道則易使也(양화4) : 학도즉애인 ↔ 학도즉이사
 - 18. 君子有勇而無義爲亂, 小人有勇而無義爲盜(양화23) :
유용이무의위란 ↔ 유용이무의위도
-

이 표를 통해 소인과 대비되는 군자의 덕성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① 군자는 관점이 두루 넓으면서 편협하지 않다. ② 군자는 덕을 생각한다. ③ 군자는 잘못했을 때 받게 될 처벌을 예상한다. ④ 군자는 의에 밝다. ⑤ 군자는 군자선비를 지향한다. ⑥ 군자는 마음이 넓고 관대하다. ⑦ 군자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자라게 해주고, 단점은 자라지 못하게 한다. ⑧ 군자는 그 덕이 바람과 같다. ⑨ 군자는 남과 조화롭게

어울리지만 남을 흉내내지는 않는다. ⑩ 군자는 섬기기는 쉽고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⑪ 군자는 태산처럼 크지만 교만하지 않다. ⑫ 군자는 그 가운데에 不仁者도 있다. ⑬ 군자는 이치가 있는 위로 통달한다. ⑭ 군자는 곤궁한 지경에 처해도 뜻을 굳게 지킴이 의연하다. ⑮ 군자는 자신에게서 잘못의 원인을 찾는다. ⑯ 군자는 작은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큰 일을 맡아서 해낼 수 있다. ⑰ 군자는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한다. ⑱ 군자는 용맹이 있으나 의가 없으면 난을 일으킨다.

이 18가지 군자의 덕성정리에서 한번 더 음미해 보아야 할 덕성은 ⑤와 ⑫와 ⑱이다. ⑤는 공자가 자하에게 한 당부인데, 자하더러 군자선비가 될지언정 소인선비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다. ‘儒’와 ‘士’를 동일개념으로 상정할 때,¹⁶⁾ 선비에도 소인선비[小人士]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선비라면 소인을 넘어선 인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선비임에도 소인을 벗어나지 못한 선비도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논어』 자로편 제20장에서 선비의 階序를 3등급으로 나눌 때, 제3등급의 선비를 소인과 결부지어 이르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구절을 보기로 한다.

자공이 말했다. “더 아래 단계의 선비는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공자께

16) 어원적으로 ‘儒 = 人(사람) + 需(배풀다)’로서 ‘士’의 덕성과 통하여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흔히 벼슬하지 않은 선비를 儒라 하는데, 「맹자」 만장하편 제6장에서는 벼슬하지 않은 선비를 士라 하고 있다. 그래서 處士니 游士니 하는 용례가 나왔다. 한편 만장하편 제2장에 上士, 中士, 下士라 하여 벼슬한 선비의 등급을 나눈 용례도 보인다. 그러니 士가 반드시 만장하편 제6장과 같이 벼슬하지 않은 선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서 말씀하셨다. “말한 것에 대해 꼭 신의를 지키려 하고(言必信), 행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과단성이 있음이(行必果) 사소한 규정과 원칙에 집착하여 단단한 차돌처럼 도량이 좁은 소인이지만(硜硜然小人哉), 이 정도라면 단지 그 다음이 될 만하다.”

다음으로 ⑫에서 군자로서 어질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점을 접할 수 있다. 소인이면서 어진 사람은 없다는 점과 대비되지만, 군자도 모두가 한결같이 어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은 ⑱에서 군자이면서 용맹만 있고 의가 없으면 난을 일으킨다는 관점과도 연결된다. 군자로 불리기만 하면 난을 일으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깨뜨려준다.

요컨대 ‘소인선비’도 있으며, 군자 중에서 어질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군자이면서 난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은 선비와 군자에 관한 이해에 역동성을 부여한다고 할 것이다. 선비와 군자라 이름 붙여진다고 하여 모든 덕성이 완덕(完德)된 것은 아니며, 관건은 그 본질적 덕성을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선비와 군자의 본질적 덕성을 비교해보기로 하자. 위에서 정리한 선비의 9가지 덕성과 군자의 18가지 덕성을 일별할 수 있는 <표 II-3>을 작성해본다.

<표 II-3> 선비의 덕성과 군자의 덕성, 그 비교

선비의 덕성	군자의 덕성
① 선비는 도에 뜻을 둔다. ② 선비는 그 임무가 막중하고, 그 도가 요원하기에 의지가 굳센 弘毅의	① 군자는 관점이 두루 넓으면서 편협하지 않다. ② 군자는 덕을 생각한다.

<p>삶을 산다.</p> <p>③ 선비는 통달을 추구한다.</p> <p>④ 선비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움으로 단속하며, 외국에 사신을 나가서는 군주의 명령을 잘 완수한다.</p> <p>⑤ 선비는 친구 간에는 간절하게 권면하고, 형제 간에는 화목하게 지낸다.</p> <p>⑥ 선비는 안락함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p> <p>⑦ 선비는 志士와 仁人으로서 인을 해치면서 목숨을 구하지 않고, 자기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p> <p>⑧ 선비는 그 가운데에 仁者를 벗으로 삼는다.</p> <p>⑨ 선비는 見危致命하고, 見得思義하며, 祭思敬하고, 喪思哀하는 사람이다.</p>	<p>③ 군자는 잘못했을 때 받게 될 처벌을 예상한다.</p> <p>④ 군자는 의에 밝다.</p> <p>⑤ 군자는 군자선비를 지향한다.</p> <p>⑥ 군자는 마음이 넓고 관대하다.</p> <p>⑦ 군자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자라게 해주고, 단점은 자라지 못하게 한다.</p> <p>⑧ 군자는 그 덕이 바람과 같다.</p> <p>⑨ 군자는 남과 조화롭게 어울리지만 남을 흉내내지는 않는다.</p> <p>⑩ 군자는 섬기기는 쉽고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p> <p>⑪ 군자는 태산처럼 크지만 교만하지 않다.</p> <p>⑫ 군자는 그 가운데에 不仁者도 있다.</p> <p>⑬ 군자는 이치가 있는 위로 통달한다.</p> <p>⑭ 군자는 곤궁한 지경에 처해도 뜻을 굳게 지킴이 의연하다.</p> <p>⑮ 군자는 자신에게서 잘못의 원인을 찾는다.</p> <p>⑯ 군자는 작은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큰 일을 맡아서 헤낼 수 있다.</p> <p>⑰ 군자는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한다.</p> <p>⑱ 군자는 용맹이 있으나 의가 없으면 난을 일으킨다.</p>
---	---

이 표에서 드러난 몇 가지 유관덕성을 중심으로 고찰해보면 선비와 군자는 ‘선비≒군자’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군자선비’라는 용례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군자의 덕성⑤). 선비 가운데 仁者가 아닌 사람도 있으며(선비의 덕성⑧), 군자도 그 가운데에 不仁者도 있는 것이다(군자의 덕성⑫). 선비는 도에 뜻을 둔다 하고(선비의 덕성①), 군자는 덕을 생각한다(군자의 덕성②)고 하여 선비를 군자의 상위로 상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비와 군자에 대한 변증이 가능하기에 조선시대에도 선비와 군자는 큰 구분 없이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선비마을(대전 아파트)’이니 ‘군자마을(안동 군자리)’과 같은 이름이 동일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면서 사용되고 있다.

Ⅲ. 女士와 女中君자의 덕성

전국시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뚜렷한 사상적 안목을 보인 맹자는 선비와 군자 외에 大人과 大丈夫라는 현실적 개념을 『맹자』에서 제시하고 있다. 선비와 더불어 운위되기도 하지만, 성인과 더불어 논해지는 군자의 높은 理想性에 대해 현실적 가능태로서 대인 내지 대장부 개념을 거론한 것이다. 이것은 더욱 어지러워진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군자 내지 선비의 현실적 역동을 염원한 발전의 형태로 보인다. 『맹자』에 보이는 대인과 대장부, 선비와 군자의 대표적인 용례를 여기서 먼저 살펴본 후 여사와 여중군자의 덕성(virtues)을 고찰하기로 한다.

‘대인’은 『맹자』 등문공상편 제4장 ; 이루상편 제20장 ; 이루하편 제6

장, 제11장, 제12장 ; 고자상편 제14장, 제15장 ; 진심상편 제19장, 제33장 ; 진심하편 제34장 등에 보인다. 이들을 면밀히 보면 지위가 높은 이를 표현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덕이 높은 이를 지칭하기도 한다. 후자로 보면 대인은 곧 군자에 준하는 용어라 할 것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용례를 보기로 한다.

<표 III-1> 『맹자』 상의 대인의 주요 용례

-
01. 예인 듯하지만 예가 아닌 예와 의인 듯 하지만 의가 아닌 의를 **대인**은 행하지 않는다(非禮之禮 非義之義 大人弗爲, 이루하6).
 02. **대인**은 말을 함에 반드시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고, 행동함에 반드시 결과가 있기를 바라지 않으며, 오직 의와 함께 있고 의에 따라 행할 뿐이다(大人者 言不必信, 行不必果, 惟義所在, 이루하11).
 03. **대인**은 어린 아이의 천진난만한 동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 이루하12).
 04. 작은 부분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부분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養其小者 爲小人, 養其大者 爲大人, 고자상14).
 05. **대인**이 있으니 자기몸을 바르게 하여 사물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有大人者 正己而物正者也, 진심상19).
 06. 인에 거하고 의를 행한다면 **대인**의 일이 갖춰지게 된다(居仁由義 大人之事備矣, 진심상33).
-

위의 용례에서 보면 대인은 군자에 준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대인 ↔ 소인’의 대칭이 그러하고(04항),¹⁷⁾ 진정한 仁과 義와 禮에 살고(01

17) ‘小人’이란 표현이 『맹자』 공손추하편 제12장 ; 등문공상편 제2장, 제4장 ; 등문공하편 제1장, 제5장 ; 이루상편 제1장 ; 이루하편 제1장, 제22장, 제24장 ; 만장하

항, 02항, 06항), 자기몸을 바르게 하여 사물을 바르게 하는(05항) 사람이 대인인데, 이것은 곧 우리가 아는 군자에 다름 아니다. 특별히 맹자의 심성론이 보이는 것이 03항인데, ‘赤子之心’의 사람이 대인이라는 것이다. 어린 아이같이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대인이다. 이것은 마치 불교의 淸淨心과 노자의 無爲의 사람을 연상시키는데, 덕이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 할 때 그 덕은 적자지심에 바탕한 덕이라야 함을 적시한 것이 맹자의 대인론의 특이점이라 하겠다. 그냥 군자라 하면 될 것을 굳이 대인이라 한 것은 ‘君’이라는 지위적 표현보다는 일반적 표현인 ‘大’를 사용하여 보편화를 추구한 것이다.

이 점은 위의 06항의 앞부분에서 대인을 선비와 연관지어 논한 내용을 보면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다. 제나라 왕자 螭이 맹자에게 ‘선비는 무슨 일을 하는가(士何事)?’ 하고 묻자, 맹자가 선비는 자신의 뜻을 고상히 한다(尙志)고 답하였고, 다시 왕자 점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뜻을 고상히 하는 것인지 묻자, 맹자가 인과 의를 행할 따름이다(仁義而已矣)라 답하면서, 이것이 곧 ‘居仁由義의 대인의 일이다’라 하고 있다. 지위적 표현인 군자 대신 일반적 표현인 대인을 사용하고, 이 대인을 선비와 상통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맹자는 대장부론을 펼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맹자』 속에 ‘대장부’는 여러 장에 나오지 않고 단지 등문공하편 제2장에 3차례 나올 따름이다. 3차례 중 대장부의 의미를 설파하고 있는 것은 3번째인데, 익히 회자되는 맹자의 다음의 언설이다. 이 언설은 앞에서 부녀자의 도(妾婦之道)를 거론한 연후에, 이에 대칭되는 것으로서 대장부의 도를 펼치

편 제7장 ; 고자상편 제14장, 제15장 ; 고자하편 제3장 등에 나온다.

고 있다.¹⁸⁾ 그러니까 맹자에 의하면 대장부의 도는 부녀자의 도에 반하는 것이며, 부녀자의 도는 소인의 도이기에, 대장부의 도는 군자의 도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에 살면서, 가장 정당한 자기위치에 서서, 천하의 가장 큰 도를 시행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고, 만일 그 뜻을 몰라주면 혼자서라도 의연히 걸어간다. 부귀도 그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고, 빈천도 그 의지를 바꿀 수 없으며, 위무도 그 절개를 굽힐 수 없으니,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 이른다(誠大丈夫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與民由之, 不得志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¹⁹⁾

맹자가 대장부란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한 것은 대인을 창안한 문제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의와 도에 배합되는(配義與道) 浩然之氣(등문공하2)의 새로운 인간상을 설정한 것이다. 군자라는 신분적 함의와 성인과 같이 운위되는 지나친 이상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군자 대신 대장부론을 개진한 것이라 하겠다. 선비 또한 盛德之士(만장상4)이기에 부담이 간다. 이렇게 본다면 맹자에 있어서 대인과 대장부는 선비와 군자의 현실화된 용례가 된다. 표현이 다르더라도 그 덕성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선비와 군자 대신에 대인과 대장부를 새롭게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인이라 하고, 대장부라 하면 현실적 생활성이 현저하게 확보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이 공자와 1세기를 상거한 맹자의 지평이다.

18) 한편 '小丈夫'란 표현이 『맹자』 공손추하편 제12장에 나온다.

19) 『맹자』 등문공하편 제2장.

『맹자』에서 선비의 용례는 아주 많고 다양해서 마치 『논어』에서 군자의 용례를 보는 듯하다. 이것은 전국시대에는 ‘士庶人’의 용례처럼²⁰⁾ 계층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으며, 이 시대에는 군자보다 선비가 보다 일반화되어 간 반증이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맹자』에서 강조된 仁義의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려 한 조선시대에 선비가 이상적 인간상으로 전면화된 맥락과 잘 연결된다고 하겠다. 『맹자』에는 士 앞에 수식어가 붙은 것이 흔하다. 이를테면 등문공하편 제1장과 만장하편 제7장의 勇士와 志士, 등문공하편 제6장과 만장하편 제8장의 善士, 등문공하편 제9장의 處士, 등문공하편 제10장의 廉士 등과 같이 성격을 나타낸 것도 있고, 만장하편 제2장의 上士·中士·下士와 같이 선비의 階序를 나타낸 것도 있다. 이런 다양한 선비의 용례는 하위관료로서,²¹⁾ 그 덕성적 자격요건을 특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맹자』에서의 군자의 용례는 『논어』와 비교하여 확실히 그 빈도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맹자』에는 군자가 82회 나오는데, 『논어』보다 2.2배 이상 전체분량이 많음에도²²⁾ 『논어』보다 군자의 그 빈도가 오히려 적은 것은 앞에서 분석한대로 선비로 많이 대체되었고, 대인이나 대장부로도 대신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빈도는 줄어들었으나, 이 82회 용례 속에 덕성의 가치를 한껏 고양하고 있는 구절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이를 <표 III-2>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는데, ‘일상의 삶을 역사로 만든’²³⁾ 여중

20) 『맹자』 양해왕상편 제1장 ; 이루상편 제3장.

21) 『맹자』 등문공하편 제3장에 “士之仕也 猶農夫之耕也(선비가 벼슬하는 것은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같다)”는 구절이 보인다.

22) 텍스트 연구자들에 의하면 『논어』의 글자수는 15,917자이고, 『맹자』의 글자수는 35,374자이다. 2.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군자 장계향과 부합되는 구절이 많다. 조선시대 여성 중 당대에 여사 내지 여중군자로 불린 여성은 장계향이 사실상 유일한데,²⁴⁾ 그 덕성이 『맹자』의 군자철학과 잘 契合된다는 점을 환기시켜 놓고자 한다. <표 III-3>의 13가지 용례가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02항, 03항, 05항, 06항, 07항, 08항, 11항, 12항 등이 장계향의 덕성을 상기시킨다.

<표 III-2> 『맹자』 상의 군자의 주요 용례

-
01. 군자는 금수에 대해서 그 살아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것이 죽는 것을 차마 다시 보지 못한다(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不忍見其死, 양혜왕상편 제7장).
 02. 군자의 최고덕행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것이다(君子莫大乎與人爲善, 공손추상편 제8장).
 03. 군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어버이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君子不以天下儉其親, 공손추하편 제7장).
 04. 옛날의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순순히 인정하고 고쳐 나갔는데, 지금의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고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古之君子 過則改之, 今之君子 過則順之, 공손추하편 제9장).
 05. 군자가 올바른 도로써 학문에 깊이 나아가는 방법은 스스로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다(君子深造之以道 欲其自得之也, 이루하편 제14장).
 06. 군자가 보통사람과 다른 까닭은 자기의 마음을 보존하는 점이다(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이루하편 제28장).
-

23) 조혜란, 「일상의 삶을 역사로 만든 안동 장씨」,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조선의 여인들』, 돌베개, 2004 ; 조혜란, 「일상의 삶을 역사로 만든 안동 장씨」, 『장계향학 문헌자료(하)』(경상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2).

24) 임윤지당의 경우 친정동생과 시동생이 힘을 모아 편찬하면서 『윤지당 유고』의 발문에 여중군자라 칭한 사례가 한번 있으나, 이것은 권속이 붙인 가문 내의 예의라 할 것이다.

-
- 07. 대저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큰 길ियो, 예는 사람이 출입하는 문인 바, 오직 군자만이 이 큰 길을 걸을 수 있고, 이 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夫義路也, 禮門也, 惟君子能由是路, 出入是門也, 만장하편 제7장).
 - 08. 군자는 단지 인을 행할 뿐이다(君子亦仁而已矣, 고자하편 제6장).
 - 09. 군자의 행위를 일반인들은 본래 잘 알지 못하는 법이다(君子之所爲 衆人固不識也, 고자하편 제6장).
 - 10. 군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진심상편 제20장).
 - 11. 군자가 가르치는 방식은 다섯 가지가 있다. 군자가 가르치는 방식은 다섯 가지가 있다. 때맞춰 내리는 단비와 같이 적절하게 교화시키는 방식이 있으며, 덕을 이루게 하는 방식이 있으며, 재질을 통달하게 하는 방식이 있으며, 물음에 답해 주는 방식이 있으며, 직접 가르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감화를 받게 하는 방식이 있다(君子之所以教者五, 有如時雨化之者, 有成德者, 有達財者, 有答問者, 有私淑艾者, 진심상편 제40장).
 - 12. 군자의 말은 하는 말이 비록 일상적이지만, 도가 그 가운데 있다(君子之言也, 不下帶而道存焉, 진심하편 제32장).
 - 13. 군자는 모든 사물을 떳떳한 상도로 돌아오게 할 뿐이다(君子反經而已矣, 진심하편 제37장).
-

『논어』에 이어 『맹자』까지 엄밀독해하여 선비와 군자, 대인과 대장부를 여사의 준거개념으로 검토하면서 그 덕성을 통관해본 바, ‘선비 - 군자 - 대인 - 대장부’의 개념과 덕성은 용어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여성을 주체화하는 여성선비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한 양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女士와 女中君子가 두루 사용되었던 것이다.²⁵⁾ 뿐만 아니라 女中學者도 동일

25) 이를 통칭하면 士君子에 대해 女士君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으로 사용되었다.²⁶⁾ 여중군자로 널리 불리는 張桂香(1598~1680)의 경우 세 가지 용례를 다 발견할 수 있다. 여사는 1960년대 대표적 유림이었던 경남 산청의 김우림의 글과 장계항의 전기소설이라 할 이문열의 『선택』에서, 여중군자와 여중학자는 조선 중기 당대의 자료들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전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 여사(1)

현부의 가르침을 받아서, 군자의 배필이 되셨다(賢父之敎, 君子之妻). 후사들이 장구하게 이어지게 하셨으니, 여성으로서 바른 선비로다(後嗣之悠, 裙徽正士²⁷⁾). 여성들의 사종으로 우뚝 서셨으니, 일찍이 부인과 같은 분이 누가 있었겠는가(閨闈師宗, 曠古誰同)! 하늘이 내신 특별한 인물이고, 인륜의 돈독한 본보기이시다(天畀之殊, 人倫之惇).²⁸⁾

○ 여사(2)

시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에 잠기셨다. 그때 문득 내(장계항)께 시아버님의 뜻을 담은 한 구절이 떠올랐다.

“水國春色이 忽登盤上하니, 香味啖來에 可得蘇病이라 하면 어떨런지요?”

그러자 시아버님께서 천천히 그 구절을 되뇌시더니 무릎을 치며 감탄하셨다.

“물나라의 봄빛깔이 홀연히 상위에 올랐구료. 그 향그러운 맛이 오래된 병을 낫게 하였소이다 - 네가 꼭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본 듯하구나. 成家 전

26) 성리학에서의 ‘학자’는 그 학문의 일상적 凡庸性(commonality)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덕을 구현하는 선비 내지 군자를 일컫는다. 율곡의 『격몽요결』 서문에 있는 ‘學問在於日用’이란 구절이 성리학의 학문적 성격을 대변하는 적절한 예가 되며, 따라서 그 학자는 선비와 군자에 준하는 용어가 된다.

27) ‘裙徽正士’는 女士의 문학적 표현이다.

28) 김우림, 『정부인 묘비명 병서』, 1966 ; 이재호 역, 『국역 정부인 안동 장씨 실기』, 국역정부인안동장씨실기간행소, 1999, 53쪽.

에 **여자선비[女士]**란 소리를 들었다더니 그게 빈말이 아니었구나.”²⁹⁾

○ **여중군자(1)**

관서공(석계 이시명)은 經訓으로써 자손들을 가르치면서 배양하기에 정성을 쏟았고, 장부인은 儒門에서 가르침을 받아 단정하고 의연하며 학식이 있어 **여중군자**라고 일컬어졌다(張夫人服訓儒門 莊毅有學識 稱女中君子).³⁰⁾

○ **여중군자(2)**

학발시는 그것이 東國의 正風이 될 것이고, 옛날에 일컫는 **여중군자**란 말에 부인은 가깝지 않겠습니까(鶴髮詩其爲東國之正風, 而古所稱女中君子)? 부인에게서 장수하시고, 아들이 많았던 것은 복록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³¹⁾

○ **여중학자(1)**

장부인은 閨範이 단정하고 정숙하여 **여중학자**로 칭해졌다(張夫人閨範莊淑 稱女中學者). 가정에서 훈도시켜 많은 현인을 잉육하였으니(家庭挺鑄 孕育多賢), 존재 선생 휘일의 경우는 자임한 것이 중하고 조예가 깊어서 가학의 전통을 크게 천명하였다. 갈암 선생 현일은 타고난 自稟이 卓異하고 총명과 식견이 남보다 뛰어난 데다가, 훈도되고 배양되어 기본이 일찍 완성되었다.³²⁾

29) 이문열, 『선택』, 민음사, 1997, 143쪽. 이처럼 장계항은 ‘시아버님’의 마음을 읽을 정도로 견식이 있었으며(有見識), 대화 중에 시를 지을 정도로 시문에 능하였다(能詩文).

30) 권두인, 「갈암 행장」, 1706 ; 권경열 역, 『국역 갈암집 6』, 민족문화추진회, 2004, 105쪽.

31) 이현경, 「전가보첩서」, 연대불상 ; 이재호 역, 『국역 정부인 안동 장씨 실기』, 국역 정부인안동장씨실기간행소, 1999, 56쪽. 연대를 추정하기 위해 이현경의 생몰년을 보면 1719년에 나서 1791년에 죽었다.

32) 권두경, 「갈암 묘지명」, 1720 ; 권경열 역, 『국역 갈암집 6』, 민족문화추진회, 2004, 170-171쪽.

○ 여중학자(2)

갈암 선생의 先妣 태정부인 장씨는 장경당 선생의 따님이시다. 경당은 陶山 심학의 전통을 학봉 김문충공에게서 받았다. 태정부인은 단아하고 단정하면서도 학식이 있었으므로 세상에서 **여중학자**라고 칭하였다(太貞夫人端莊有學識 世稱女中學者). 선생의 중씨 존재 선생은 경당의 학문을 전해 받았으니, 선생의 형제는 師友가 되는 셈이다.³³⁾

이상과 같은 여섯 문장 속에서 여사·여중군자·여중학자로서의 장계향의 덕성을 일정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여사의 덕목으로 거론된 것으로는 <후사들이 장구하게 이어지게 하고, 여성들의 사중으로 우뚝 서며, 인륜의 돈독한 본보기가 되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정도의 견식이 있으며, 시문에 능함 등>이다. 여중군자의 덕목으로 표현된 것으로는 <유문에서 가르침을 받고, 단정함과 의연함이 있으며, 학식이 풍부하고, 동국의 정풍을 지을 정도 시문에 능함 등>이다. 여중학자의 덕목으로 나타난 것으로는 <규범이 단정 정숙하고, 많은 현인을 낳고 길러냈으며, 단아 단정하고, 학식이 풍부함 등>이다. 이를 <표 II-3>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표를 통해서 보면 장계향의 한결같이 높은 덕성을, 기리는 이에 따라 여사 또는 여중군자 내지 여중학자라 칭했음을 알 수 있다. 현모양처의 측면이 분명히 있으면서, 학식이 풍부하고, 시문에 능하며, 단정하고 의연한 그런 여성을 여사 또는 여중군자 내지 여중학자로 불렀던 것이다. 이 점을 확인하면서 오늘날 ‘여중군자 장계향’으로 널리 불리는 장

33) 권두경, 「갈암 유사」, 1706 ; 권경열 역, 『국역 갈암집 6』, 민족문화추진회, 2004, 176쪽.

계향의 四德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갈암 이현일은 장계향의 행실기에서 다음과 같이 그 총덕을 넷으로 나누어 서술한 바 있다.

부인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이미 풍부하였는데, 배움까지 더하였으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겼고(仁愛懇惻), 착한 일을 즐거워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좋아하였는데(樂善好義), 이렇게 하기를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처음과 끝이 여일하게 하였다(終始如一). 노년에 이르러서 기력이 쇠약해져 생각처럼 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을 인도하여 착한 일을 하도록(導人爲善) 하는 뜻만은 끝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³⁴⁾

첫째는 仁愛懇惻이고, 둘째는 樂善好義이며, 셋째는 終始如一이고, 넷째는 導人爲善이다.³⁵⁾ 이 네 가지 덕이 여중군자 장계향의 덕성을 총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장계향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겼고, 착한 일을 즐거워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이렇게 하기를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처음과 끝이 여일하게 하였고, 자신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을 인도하여 함께 착한 일을 하도록 한 여중군자이다.

34) 이현일, 「정부인 안동 장씨 행실기」, 1690경 ; 이재호 역, 『국역 정부인 안동 장씨 실기』, 국역정부인안동장씨실기간행소, 1999, 31쪽.

35) 박희택, 「여중군자 장계향의 구상과 사덕」, 『장계향학 문헌자료(하)』, 경상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2, 335쪽.

<표 III-3> 여사·여중군자·여중학자 장계향의 덕성

칭 호	장계향의 덕성
여 사	① 후사들이 장구하게 이어지게 함(後嗣之悠). ② 여성들의 사종으로 우뚝 섬(闡闡師宗). ③ 인륜의 돈독한 본보기가 됨(人倫之攄). ④ 상대의 마음을 읽을 정도의 견식이 있음(有見識). ⑤ 시문에 능함(能詩文).
여중군자	① 유문에서 가르침을 받음(服訓儒門). ② 단정함과 의연함이 있음(莊毅). ③ 학식이 풍부함(有學識). ④ 동국의 정풍을 지을 정도 시문에 능함(東國之正風).
여중학자	① 규범이 단정 정숙함(闡範莊淑). ② 많은 현인을 낳고 길러냄(孕育多賢). ③ 단아 단정함(端莊). ④ 학식이 풍부함(有學識).

IV. 女士와 女中君子的 맥락

여사와 여중군자의 덕성에 이어 우리 역사에 있어 그 맥락(genealogy)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 맥락을 파악하는 소이(所以)는 여사와 여중군자의 덕성이 단절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흔히 유학에서 ‘道統’이라 하는 것이 남성 전유물만이 아님을 보이고, 어찌면 관념에 머문 남성 사와 군자의 덕성을 넘어서 현실 속에서 온기 있게 살려낸 여사와 여중군자의 덕성의 계통학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맥락은 조선 사림의 경우와 같은 도통은 아니다. 여사와 여중군자의 덕성의 계보학으로서의 맥락이다.

유학에서 도통의식의 원형은 공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³⁶⁾ 『논어』 술이편 제22장에서 “하늘이 나에게 문명을 계승할 덕을 주셨다(天生德於予)”라 하였고, 자한편 제5장에서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 다음 세대로 전할 문명이 여기 나에게 있지 아니한가(文王既沒 文不在茲乎)?”라 하고 있다. ‘요 - 순 - 우 - 탕 - 문 - 무 - 주공’에 이어 ‘공자’ 자신이 문명을 계승할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이 계통의 대부분은 요왈편 제1장에 재정리되어 있기도 하다. 맹자 또한 도통의식을 강렬하게 개진하고 있다. 『맹자』 공손추하편 제13장과 진심상편 제38장에서 5백년 단위로 성군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덕업으로 이름이 세상에 나는 자가 나오는데, 주나라 무왕 이래 7백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나오지 않으니, 자신이 그 역할을 하리라고 스스로 자임하고 있다.

이를 이어서 당대 한유가 불교와 도교를 의식하여 도통을 실제적으로 주창한 이래, 다시 북송의 정이천과 남송 주희가 도통확립의식을 보여 주었다. 정이천은 친형 정명도가 맹자 이래 1천 년을 경과하여 도통을 이었다고 하였으며, 주희는 ‘공자 - 안연/증자 - 자사 - 맹자 - 二程子³⁷⁾’ 순으로 도통을 밝힌 바 있다. 조선시대에는 퇴계가 『聖賢道學淵源』을 비롯한 일련의 저작을 통해서 도통문제에 직접적으로 힘을 쏟았으며, 율곡 또

36) 공자 이전으로 소급하자면 『서경』 홍범편에 있고, 공자 이후 맹자 이전에는 『중용』 진편에 걸쳐 도통의식이 배어 있다. 주자는 「중용장구서」에서 『중용』의 도통의식을 정리한 바 있다.

37) 北宋 五子 중 정명도와 정이천을 일컫는다.

한 『聖學輯要』 제5편에서 聖賢道統을 설정한 바 있다. 이처럼 宗匠들이 한결같이 도통에 관념하는 것은 선비 내지 군자의 덕성이 정당하게 계승되기를 발원한 연유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체의식은 여사와 여중군자를 다루는 여기에서도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여사와 여중군자 내지 여중학자를 동일범주로 보고, 우리 역사에 그 맥락을 파악하자면 신사임당을 濫觴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 이전 시기에 순창의 설씨 부인(1429~1508)을 꼽기도 한다. 설씨 부인은 신숙주 동생 신말주의 부인인데, 신말주는 형이 수양대군(세조)의 왕위 찬탈에 간여하자 처가인 순창으로 내려갔고, 설씨 부인은 불사를 위해 14쪽의 勸善文을 짓고, 채색으로 2쪽의 사찰그림을 그려 돌려 보게 했다. 그림첩은 보물 제72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권선문은 여성필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면서 문장수준이 높아 위당 정인보가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³⁸⁾ 最古 여성필적의 당사자이고, 詩書畫에 능하여 여사와 여중군자의 맥락에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덕성의 현양에 대한 연구가 더 따라야 하기에 이 글에서는 여사와 여중군자의 맥락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소개해두는 것으로 한다.

또한 『내훈』을 편찬한 소혜왕후(1437~1504)가 있기는 하나, 그 신분이 왕후인 관계로 여사라 부르기에는 난점이 따른다. 소혜왕후 이전에는 선덕여왕이 있으나, 불교의 轉輪聖王을 지향한 신라 中古期 군주로서 여사 내지 여중군자의 계통에 넣기에는 역시 마땅하지 않다. 선비정신의 원형을 단군신화에 두고, 삼국시대의 선비까지 상정한 신채호 내지 한영우의

38)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166266(검색일: 2014. 10.10).

시각³⁹⁾과 같이 廣遠하게 잡으면 선덕여왕과 소혜왕후도 우리 역사의 여사 내지 여중군자의 맥락의 앞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의 여성을 중심으로 맥락을 설정하고자 하며, 다만 김만덕은 사대부 가문 출신은 아니나 그 덕성이 장엄하여 이가환·채제공·정약용과 같은 당대의 경대부들은 물론이고 정조의 칭송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여 넣었다.

그렇다면 신사임당과 김만덕이라 하였을 때, 여사와 여중군자의 맥락에 포함시키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顯德과 君子不器⁴⁰⁾라는 두 가지를 여사와 여중군자 설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하나로 표현하면 ‘군자불기적 현덕’이다. 덕성의 실천으로 하나만이 아닌 군자의 다양한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 관건은 덕성의 실천이다. 군자불기는 덕성의 실천에 따라 생겨나는 餘果이고, 임윤지당 및 김만덕과 같이 덕성의 실천이 특별한 한 가지일 경우에는 군자불기라 아니하고 할 수 있으나, 그 당대에 특별한 君子像인 사상가(임윤지당)와 사회사업가(김만덕)를 군자불기의 總像으로 보아 수용하기로 한다.

士에 준하는 군자의 덕성으로 『논어』에 개진된 대표적인 것은 君子三도와 君子三以와 爲仁五者가 있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위인오자에는 군자라는 말이 없으나 위인은 군자의 本務라 위인오자는 군자의 덕성

39) 한영우, 『미래와 만나는 한국의 선비문화』, 세창출판사, 2014. 한영우의 시각에 입각한다면 『삼국유사』에 보이는 處士와 居士를 선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영우의 이런 시각은 일찍이 신채호에게서 발견된다. 신채호는 1925년 「동아일보」에 실은 “조선역사상 일천래의 제일대사건”(같은 지면에 연재한 다른 5편의 논문과 함께 1929년 『조선사 연구초』로 간행됨)에서 화랑과 선인과 선비 등을 같은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다.

40) 『논어』 위정편 제12장.

으로 거론된다. 여사와 여중군자의 덕성의 실천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는 군자삼도, 군자삼이, 위인오자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 군자삼도(헌문30) : 仁知勇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의 도가 인지용 3가지인데, 나는 하나도 잘 하는 것이 없다.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현혹되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⁴¹⁾

○ 군자삼이(헌문45) : 修己以敬, 修己以安人, 修己以安百姓

자로가 군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경으로써 자기인격을 수양하는 것이다.” 자로가 말했다. “이렇게 하면 다 됩니까?” 공자께서 “자기인격을 수양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라 말씀하셨다. 자로가 “이렇게 하면 다 됩니까?”라 물었다. 공자께서 “자기인격을 수양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인격을 수양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조차도 오히려 어렵게 여기셨던 일이다”라 말씀하셨다.⁴²⁾

○ 위인오자(양화6) : 恭寬信敏惠

자장이 공자에게 인에 대하여 질문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를 천하에서 행할 수 있다면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장이 말해주기를 청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함, 너그러움, 믿음직함, 민첩함, 은혜로움이다.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너그러우면 대중을 얻는다. 믿음직하면 사람들이 의지한다. 민첩하면 공을 세운다. 은혜롭게 하면 사람들이 일을 자청하기에 어려움 없이 사람을 부릴 수 있다.”⁴³⁾

41) 子曰。君子道者三，我無能焉。仁者不憂，知者不惑，勇者不懼。

42) 子路問君子。子曰。修己以敬。曰如斯而已乎？曰修己以安人。曰如斯而已乎？曰修己以安百姓。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43) 子張問仁於孔子。孔子曰。能行五者於天下 爲仁矣。請問之。曰恭寬信敏惠。恭則不侮，寬則得衆，信則人任焉，敏則有功，惠則足以使人。

연동해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선비와 군자가 수기의 차원에서 정성을 들인 學藝一致의 삶의 모습이다. 여사와 여중군자에게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시서화에 능한 예술가의 상으로 귀결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사와 여중군자로서의 학예일치의 삶의 모습이다. 文史哲의 이성과 詩書畫의 감성을 합일시키려는 하였음이다. 여사와 여중군자에게는 학예일치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신사임당의 경우 ‘현모양처+교육자+시인+서예가+화가’의 군자불기적 현덕이 돋보인다.

연대기적으로 신사임당 다음에는 조선 중기(제10대 연산군대~제18대 현종대)의 장계향이 비할 수 없는 九像을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Ⅲ에서 보았듯이 당대에 사대부들로부터 여중군자 내지 여중학자로 칭송되어져 이 맥락에 들어가게 된다. 장계향과 김만덕 그 사이에는 강원도 원주에 터한 여성성리학자 임윤지당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성리학자라는 단 하나의 특별한 위치가 군자불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덕의 특별함으로 칭송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 김만덕의 경우도 ‘사회사업가’라는 단 하나의 현덕만 보여 군자불기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조선역사에서 장계향 외에 사회사업가라 할 만한 거의 유일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맥락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들 ‘신사임당 - 장계향 - 임윤지당 - 김만덕’ 외에도 현덕을 보여 여사와 여중군자라 불리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적지 않은 여성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태교신기』를 쓴 사주당 이씨, 『정일당 유고』를 남긴 정일당 강씨⁴⁴⁾, 『규합총서』 등을 남긴 빙허각 이씨 등을

44) cf. 이남희, 「조선 후기의 ‘女士’와 ‘女中君子’ 개념 고찰 : 지식인 여성 연구를 위한 시론적 접근」, 『역사와 실학』47, 2012.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을 다루고 있다.

거론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예컨대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조선의 여인들』⁴⁵⁾이나 『한국고전 여성시사』⁴⁶⁾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여성 인물들은 文才가 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가문을 일으켜 세운 리더십도 뛰어나 여사와 여중군자로 검토될 만한 이가 적지 않으나, 군자불기적 현덕이라는 기준에서 숙고를 요한다.

이제 ‘신사임당 - 장계향 - 임윤지당 - 김만덕’을 조선 여사와 여중군자의 맥락으로 설정하면서, 이들의 여사상 내지 여중군자상을 논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매듭지어 나가려 한다. 이들을 세상에서 부르는 현모양처 신사임당, 여중군자 장계향, 여성성리학자 임윤지당, 醫女班首 김만덕의 이름으로 맥락적 구성을 해본다.

○ **현모양처 신사임당(1504~1551)** : 신사임당의 본명은 申仁善이다. 조선시대에 흔히 여성들의 이름이 없었다고 여기나, 부모들이 아이이름을 부를 때부터 다들 이름이 있었다. 여자아이라고 하여 이름이 없이 부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신인선’도 그 한 증거이다. 다만 남존여비의 시대질서 속에서 족보 등에 누구에게 시집을 간 어디 성씨 정도로 남성 위주로 기록되어 왔을 따름이다.

申師任堂은 주나라의 토대를 닦은 문왕의 어머니 太任를 본받고자[師] 스스로 자호한 것이다. 자호하면서까지 태임을 본받고자 한 것은 자신의

45) 박무영·조혜란·김경미,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조선의 여인들』, 돌베개, 2004. ‘신사임당 - 송덕봉 - 허난설헌 - 이옥봉 - 안동 장씨 - 김호연재 - 임윤지당 - 김만덕 - 김삼의당 - 풍양 조씨 - 강정일당 - 김금원 - 바우덕이 - 윤희순’ 순으로 소개되어 있다.

46) 조연숙, 『한국고전 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자녀를 문왕과 같은 성인으로 세우기 위한 특별한 포부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신사임당에게서 이 점부터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사임당은 19세에 덕수 이씨 가문의 이원수와 결혼하여 4남 3녀를 낳아 양육하였는데, 조선조의 대학자이자 대정치가인 율곡 이이는 3남이다. 큰 딸 이매창과 막내이들 옥산 이우는 신사임당의 예술가적 자질을 물려받아 작품을 다수 남겼다.

48세에 사거한 신사임당이 현모양처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논점이 있다.⁴⁷⁾ 서울 시집에서는 10년 정도 살았지만, 친정인 강릉에서 20여 년을 살았으며, 사거할 때 부군에게 재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서는 친정에는 딸만 다섯이었고, 둘째 딸 신사임당이 친정어머니와 뜻이 잘 맞아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해 속에 아들잡이 역할을 하느라 친정에 주로 머문 것이니 반드시 비판할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효녀라 칭할 만하다. 더구나 당시에는 男歸女家婚이 일반적이어서 남자가 여자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신랑은 본가와 처가를 주기적으로 오갔다. 또한 재혼문제도 중년에 세상을 하직하면서 부군의 재혼으로 혹여 인심이 순하지 못한 새어머니를 만나 어린 남매들이 상처받지 않을 까를 염려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사임당이 사거할 때 율곡도 16세에 지나지 않았다.

신사임당의 '채색 화훼초충도'를 비롯한 그림이 빼어난 점에 대해서는 당대에도 현재에도 이견이 잘 보이지 않는다. 글씨는 낙관이 없이 신사임당의 것이라 傳稱되는 초서가 여러 점 있다. 시는 전하는 것이 2수가 온

47) 이순구,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인가?」, 『조선의 가족 천개의 표정』, 너머북스, 2012, 18-23쪽.

전하고 1수는 落句로 남아 있다. 말하자면 그의 천부적 예술가의 자질은 주로 그림을 중심으로 운위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비록 2.5수 정도 남아 있는 시도 운취가 빼어난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⁴⁸⁾

이렇게 볼 때 신사임당은 ‘현모양처’로서, 조선조의 대표적인 대학자이자 대정치가인 이이와 예술가로 빛난 이매창 및 이우를 키워낸 ‘교육자’로서, 또 ‘시인’과 ‘서예가’와 ‘화가’로서 군자불기의 현덕을 보였다고 하겠다. 비록 학문을 연마하여 철학적 견해를 개진한 사상가적 면모나, 구휼에 나선 사회사업가적 면모는 보이지 않으나, 여사 내지 여중군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 40대 후반에 사거하지 않고 천수를 누렸다면 보다 눈부시게 현덕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 **여중군자 장계향(1598~1680)** : 장계향은 83년에 걸친 전생애를 통하여 비할 바 없는 덕성을 보여 조선 중기 당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여성으로 존경을 받아왔다. 안동 금계에서 태어나 19세에 영덕 영해의 석계 이시명에게 출가하기 이전에는 친정 부모에게 효순을 다하였고, 석계의 후실로 출가하여서는 ‘현모양처’로서 시부모와 남편을 지성으로 공경하고, 전실이 낳은 1남 1녀와 자신이 낳은 6남 2녀를 모두 현자로 양육하여 위대한 어머니이자 진정한 ‘교육자’로 칭해졌다.

타고난 자질이 풍부하여 시·서·화에 능하였으나(‘시인’·‘서예가’·‘화가’), 당시의 관념으로 여성의 길이 아님을 지각하고 작품을 남기는 일

48) 신사임당의 시서화에 대해서는, 강릉시오죽현·시립박물관 편, 『아름다운 여성, 신사임당』, 강릉시오죽현/시립박물관, 2004 ;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편, 『신사임당 가족의 시서화』, 강릉시, 2006를 참조하였다.

과는 거리를 둔⁴⁹⁾ 결단의 여성이었다. 반면에 재령이씨 영해파 문중의 큰 살림을 맡아살면서, 왜란과 호란으로 피폐해진 민초들의 삶을 집안의 곡식을 풀고 도토리죽을 쑤면서까지 널리 구휼한 ‘사회사업가’의 모습을 확연히 보였다. 그러면서도 성리학에 기초한 자신만의 사상을 정립한 ‘사상가’였고, 불후의 저작인 『음식디미방』을 조리과학으로 남긴 ‘과학자’이며,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 할 영양 두들마을을 개척한 ‘문화창조자’의 모습도 보였다.

이같은 장계향의 全人的 九像의 삶은 조선시대의 많은 뛰어난 여성들과 대비될 때도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특별한 빛을 발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여중군자의 이름으로 총괄할 수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장계향은 군자불기적 현덕을 가장 폭넓고 깊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신사임당이 보인 ‘현모양처 + 교육자 + 시인 + 서예가 + 화가’는 물론이고, ‘사상가 + 사회사업가 + 과학자 + 문화창조자’의 모습까지 보인 것이다.

여중군자 장계향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덕성의 전인성에 있기도 하지만, 시대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이치에 입각하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한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홀로 된 친정아버지를 시집 간 이후에도 보살피고, 재혼을 시켜드린 후 자신보다 젊은 새 어머니와 동생들을 다함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하여 바로 서게 하였다. 성리학적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장계향은 어떤 사안에도 이와 같이 이치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기에 ‘깨달은 조선 여인’으로도

49) 이덕무이 지은 수신서 『士小節』(1775)의 “婦議”에는 班家の 여성은 시와 시가를 숭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시와 가사는 첩과 기생이 주로 숭상하기에 그렇다고 하였다[이순형, 『한국의 명문 종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343쪽].

불리고 있는 것이다.⁵⁰⁾

여중군자 장계향의 특별한 점은 성인지향의식이라 할 것이다. 10세 전후의 소녀기에 쓴 “성인음”은 『맹자』 이루하편 제32장의 “요순과 같은 성인도 보통사람과 같을 뿐이다(堯舜與人同耳)”는 사상, 고자상편 제7장의 “성인도 우리와 동류이다(聖人與我同類者)”는 사상에 적극 부합된다. III에서 언급하였듯이 『맹자』의 군자관과 장계향의 여중군자상은 부합되는 측면이 크다. 같음은 어머니 장계향의 여중군자상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沈晦自持이고, 둘째는 卑順自牧이며, 셋째는 氣調豪爽이고, 넷째는 識度清遠이며, 다섯째는 無不領會이다.

부인께서는 비록 학문과 재능을 숨겨서 스스로의 지조를 지키고(沈晦自持), 자기몸을 낮추어 순종하면서 스스로 처신하고 있었지만(卑順自牧), 기상과 품격은 호방하고 쾌활하며(氣調豪爽), 견식과 도량은 청아하고 원대하였기에(識度清遠), 고금의 사변에 대해서도 모두 이해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無不領會).⁵¹⁾

○ 여성성리학자 임윤지당(1721~1793) : 조선시대를 통관하여 ‘여성성리학자’로 불리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여성이 강원도 원주를 거소로 한 임윤지당이다. 그 학문의 결실은 문집 『윤지당 유고』(2권 1책)에 담겨져 있다. 상편에는 ‘傳 2편 - 논 11편 - 발 2편 - 설 6편’이 실려 있고,

50) 박희택, 「여중군자 장계향의 구상과 사덕」, 『장계향학 문헌자료(하)』(경상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2, 327-328쪽. ‘깨달은 조선여인’은 김서령, 『장계향, 깨달은 조선여인』(경상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9)에 보인다.

51) 이현일, 「정부인 안동 장씨 행실기」, 1690경 ; 이재호 역, 『국역 정부인 안동 장씨실기』, 국역정부인안동장씨실기간행소, 1999, 29쪽.

하편에는 ‘잠 4편 - 명 3편 - 찬 1편 - 제문 3편 - 인(引) 1편 - 經義 2편’이 수록됐다. 부록에는 ‘언행록 - 발문’이 실려 있다. 한시가 보이지 않아 임윤지당이 여성성리학자임을 말해준다. 이 문집은 시동생(신광우)과 친정동생(임정주)에 의해 편찬되었고, 임정주는 발문에서 자신의 누님이 여중군자라 할 만하다고 찬하고 있다.

‘윤지당’이란 당호는 둘째 오빠로서 조선 후기 대성리학자인 임성주가 주자의 글귀인 ‘允莘攀’ 가운데 두 자를 취하여 임윤지당이 어릴 적부터 불러준 것이다. ‘允’은 ‘부합하다’의 뜻이고, ‘攀’는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의 친정고향을 지칭한다.⁵²⁾ 이렇게 본다면 신사임당의 ‘師任’과 표현을 달리 한 같은 의미라 할 것이니, 어릴 적부터 임윤지당의 학문적 자질과 포부가 오빠의 눈에도 크게 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빠 임성주가 임윤지당으로 불러준 데에는 태임의 성씨가 같은 임씨라서 더욱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한 점도 작용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임윤지당은 시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역사논평인 논 11편과 독자적인 성리학설인 설 6편을 남긴 걸출한 여성성리학자이기에 친정동생이 여중군자라 불러줄 만하다고 하겠으나, 장계향과는 달리 당대 사대부들로부터 그렇게 불리지 못하고 집안 내에 그친 것이 아쉽다. 장계향의 경우 처럼 어머니의 뜻을 널리 현양해줄 자식들을 두지 못한 연유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여성성리학자로서 ‘사상가’의 깊이를 보여준 임윤지당은 조선 성리학의 빛나는 성취의 하나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 의녀반수 김만덕(1739~1812) : ‘의녀반수’는 궁중 의녀 중 우두머

52) 참고로 ‘莘’은 문왕의 부인인 太姒의 친정고향을 지칭한다.

리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김만덕이 유통업으로 모은 재화로 쌀 5백 섬(1천 가마)을 사서 제주도민을 구휼한 덕업을 들은 정조가 김만덕의 한양 도성과 금강산 유람을 허락할 적에 내린 명예직 벼슬이다. 또한 정조는 초계문신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만덕전을 지으라는 출제를 할 정도로 김만덕을 높이 쳤다.⁵³⁾ 정조만이 아니라, 형조판서 이가환은 찬시를 지었고, 영의정 채제공은 “만덕전”이란 전기를 썼으며, 다산 정약용은 김만덕의 부탁을 받고서 시권에 발문을 써주었다.

당대의 공경과 사대부의 稱歎을 한결같이 받은 김만덕이지만, 기녀 시절에는 대단히 음흉하고 인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예컨대 沈魯崇이 1794년 제주목사로 재임 중이던 아버지를 뵈기 위해 제주에 가서 몇 달 동안 머물면서, 제주사람들로부터 김만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남긴 기록에는, “만덕이 기생 노릇을 할 때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하여 남자가 돈이 많으면 따랐다가 돈이 떨어지면 떠나되 옷가지마저 빼앗아서 그녀가 지닌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었다고 한다. 그 바지를 늘어놓고 햇볕에 말리는 것을 보고 동료 기생마저 침을 뱉고 욕했다. 그렇게 벌어서 만덕은 제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음식을 구걸하는 형제도 돌보지 않았던 만덕은 제주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쳐서 한양에 이르고 금강산을 구경하고자 했다. 여러 학사들은 만덕의 호탕한 말에 넘어가 전기를 지어 그녀를 칭송했다”⁵⁴⁾고 되어 있다.

‘사회사업가’의 선한 덕성으로 당대 군왕을 위시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53) 『일성록』, 21년 11월 28일조.

54) 안대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제주의 여인 사회사업가 김만덕」,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 한겨레출판사, 2010.

감동시킨 김만덕에게 이런 선하지 못한 성품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기녀의 생활은 기업가로 일어서기 위한 각오와 인고의 시간이었기에 위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 것이며, 기업가가 되어서는 자선을 해야 한다는 각성 위에 사회사업가의 길로 상승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여사와 여중군자의 맥락을 논점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여사와 여중군자는 君子三以와 爲仁五者의 실천에 부족함이 없는 여성이면서, 유학에서 덕성의 總和로 거론되는 삼덕의 관념으로 보면 특히 君子三道인 ‘인지용’을 모두 구비한 사람들이다. ‘인’을 爲上으로 하되, ‘지’의 안목도 진정 밝았으며,⁵⁵⁾ ‘용’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 삼덕을 균형적으로 갖추어 남성 사대부들도 실천하지 못한 사회사업을 과감하게 해내고, 학예일치적 삶을 영위하여 여성으로서 전대를 빛내고 후진을 계발하는 光前啓後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선비와 여성’을 주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광전계후의 가치적 삶에 천착하기 위해서이다. 여사와 여중군자를 선양하는 것에서 나아가, 오늘을 사는 여성 자신들이 여사와 여중군자가 되려는 발심이 요구된다. 그 대표적 사례로 김춘희 경북새살림봉사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북 여성리더들의 ‘女中君子運動’**을 들 수 있다. 2008년 이래 ‘장계향아카데미’ 등을 비롯한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을 전개하여, 2011년 ‘사단

55) 여성의 지혜에 관한 좋은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 이완재, 「약봉 서성의 어머니 이야기」, 『희망을 여는 창』33, 2012 여름 ; 이완재, 「월사 이정귀의 부인 이야기」, 『희망을 여는 창』34, 2012 가을.

법인 여중군자장계향선양회'를 발족시켰으며, 2012년에는 세 권으로 된 『장계향학 문헌자료』를 집성하였고,⁵⁶⁾ 2012년부터는 '여중군자강독회'를 구성하여 스스로 여중군자가 되기 위해 『논어』와 『맹자』 등을 공부해오고 있다. 이렇게 '신사임당 - 장계향 - 임윤지당 - 김만덕' 이후에도 女士와 女中君子의 맥락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⁵⁷⁾

【참고문헌】

1. 原典資料

- 經書 : 『논어』, 『맹자』, 『소학』, 『중용』.
- 史書 : 『삼국유사』, 『서경』, 『영조실록』, 『일성록』.
- 典書 : 『내훈(인효문황후)』, 『내훈(소혜왕후)』, 『사소절』, 『여계』, 『여논어』, 『여범첩록』, 『여사서 집주』, 『윤지당 유고』.

56) 경북여성정책개발원(당시 원장 한재숙)이 집성작업을 맡아 『장계향학 문헌자료(전3권)』, 경상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2를 펴냈다.

57) 경북여성들의 여중군자운동 이전 시기에 위치한 영부인 육영수의 군자불기적 현덕에 대해 학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혜왕후의 경우와 같이 최고 통치권자의 부인이어서 여사와 여중군자의 맥락에 포함시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있으나, 봉건신분사회가 아닌 민주사회이니 만큼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넘어서 판단이 타당하고, 육영수 자신 단지 영부인의 권능으로 여사 내지 여중군자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김만덕 이래 '육영수 - 여중군자운동(경북)'의 맥락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육영수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박희택, 「한국 여성리더십의 4가지 유형」, 『경상북도 인터넷신문 프라이드 i뉴스』, 2012.9.27 ; 박희택, 「현모양처형 여성리더십」, 『경상북도 인터넷신문 프라이드 i뉴스』, 2012.10.16을 참조할 수 있다.

2. 研究資料

-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편, 『아름다운 여성, 신사임당』,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2004.
-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편, 『신사임당 가족의 시서화』, 강릉시, 2006.
- 권두경, 「갈암 묘지명」, 1720 ; 권경열 역, 『국역 갈암집 6』, 민족문화추진회, 2004.
- 권두경, 「갈암 유사」, 1706 ; 권경열 역, 『국역 갈암집 6』, 민족문화추진회, 2004.
- 권두인, 「갈암 행장」, 1706 ; 권경열 역, 『국역 갈암집 6』, 민족문화추진회, 2004.
- 김서령, 『장계향, 깨달은 조선여인』, 경상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9.
- 김우림, 「정부인 묘비명 병서」, 1966 ; 이재호 역, 『국역 정부인 안동 장씨 실기』, 국역정부인안동장씨실기간행소, 1999.
- 박무영·조혜란·김경미,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조선의 여인들』, 돌베개, 2004.
- 박희택, 「여중군자 장계향의 구상과 사덕」, 『장계향학 문헌자료(하)』, 경상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2.
- 박희택, 「한국 여성리더십의 4가지 유형」, 『경상북도 인터넷신문 프라이드 i뉴스』, 2012.9.27.
- 박희택, 「현모양처형 여성리더십」, 『경상북도 인터넷신문 프라이드 i뉴스』, 2012.10.16.
- 신채호, 『조선사 연구초』, 범우사, 2004.
- 안대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제주의 여인 사회사업가 김만덕」,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 한겨레출판사, 2010.
- 이경하 주혜, 『내훈』, 한길사, 2011.
- 이남희, 「조선 후기의 ‘女士’와 ‘女中君子’ 개념 고찰 : 지식인 여성 연구를 위한 시론적 접근」, 『역사와 실학』47, 2012.
- 이문열, 『선택』, 민음사, 1997.
- 이숙인 역주, 『여사서』, 여이연, 2003.
- 이순구,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인가?」, 『조선의 가족 천개의 표정』, 너머북스, 2012.
- 이순형, 『한국의 명문 종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이완재, 「약봉 서성의 어머니 이야기」, 『희망을 여는 창』33, 2012 여름.
- 이완재, 「월사 이정귀의 부인 이야기」, 『희망을 여는 창』34, 2012 가을.
- 이현경, 「전가보첩서」, 연대불상 ; 이재호 역, 『국역 정부인 안동 장씨 실기』, 국역 정부인안동장씨실기간행소, 1999.
- 이현일, 「정부인 안동 장씨 행실기」, 1690경 ; 이재호 역, 『국역 정부인 안동 장씨 실기』, 국역정부인안동장씨실기간행소, 1999.
- 장계향 외, 『장계향학 문헌자료(전3권)』, 경상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2.
- 조연숙, 『한국고전 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 조혜란, 「일상의 삶을 역사로 만든 안동 장씨」,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조선의 여인들』, 돌베개, 2004.
- 한영우, 『미래와 만나는 한국의 선비문화』, 세창출판사, 2014.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166266.

Abstract

The Virtues and Genealogy of Woman Scholars

Park, Hee-Taek

When it is viewed by expanding women without confining to men, the establishment of woman scholars(yeosa, 女士) may soon assumed. Historically, the establishment of woman scholars have been made with the compilation of the books for woman scholars by the woman educational scholars(女學士). There are 4 concepts, that is, scholars(士), man of virtues(君子), man of generosity(大人), man of great spirit(大丈夫) as the criteria concepts of woman scholars. I realize that these are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spite of differences in terminology through reading closely the Analects of Confucius(論語) and Mencius(孟子). In connection with woman scholars subjecting women, such aspects are more likely not to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Yeosa(女士) and woman of virtues(女中君子) and woman of scholars(女中學者) have been used throughout. For Jang Gye-hyang(張桂香, 1598~1680) referred to as the woman of virtues, all three applications can be found.

The virtues of woman scholars are clearly having aspects of good wife and wise mother, highly literating, able to writing poetry, fulfilling with well-conducting and resolute virtues. In the case of Jang Gye-hyang in the middle years of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have been represented four virtues(四德), namely inaeganchuk(仁愛懇憫) and nakseonhoeoi(樂善好義) and jongsiyeoil(終始如一) and doinwiseon(導人爲善). Jang Gye-hyang loves and feels sorry for people(inaeganchuk), enjoys good works and is fond of doing the right thing(nakseonhoeoi), does consistently from young age to old(jongsiyeoil), brings people to go together good works beyond her own(doinwiseon). The genealogy of woman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is 'Shin Sa-im Dang,

continuing Jang Gye-hyang, continuing Lim Yoon-ji Dang, continuing Kim Man-deok.' Shin Sa-im Dang is a symbol of good wife and wise mother, Jang Gye-hyang is a representative woman of virtues, Lim Yoon-ji Dang is a woman Confucian scholar, Kim Man-deok is a byword of social worker. In the modern times movement for woman of virtues by woman leaders in Gyeongbuk province since 2008 continues its genealogy.

Key Word

Woman Scholars, Yeosa(女士), Woman of Virtues(女中君子), Woman of Scholars(女中學者), Shin Sa-im Dang, Jang Gye-hyang, Lim Yoon-ji Dang, Kim Man-deok, Movement for Woman of Virtues(Gyeongbuk)

▪ 논문투고일 : 2015.1.19. 심사완료일 : 2015.2.14. 게재결정일 : 2015.2.14.